

롯데케미칼, 3분기 EBITDA 배율 0.9배... EOD 불가피 전망

〈상각 전 영업이익〉

〈기한이익상실〉

EOD 사유 공고... 시장 불안감 고조
3개년 이자보상배율 추정치 4.3배
“직원 감원 관련 내용은 사실 아냐”

롯데케미칼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고해 롯데그룹의 유동성과 관련해 시장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전히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21일 발행시기가 미도래한 회사채에 대한 EOD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14개 회사채 규모는 2조 3000억원이다.

EOD란 채무자가 사채관리 계약 등의 약정 조건을 위반했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기 이전에 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사채관리계약에서 규정된 특정 조건 등의 위반으로 발생한다. 이번 문제는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3개년 평균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율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EBITDA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비용·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벌어들인 순이익을 의미한다.

롯데케미칼은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재무비율을 준수한 상태였다. 사채관리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공시를 완료했다. 그러나 3분기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3개년 이자보상

배율 평균 추정치가 4.3배로 예상돼 EOD 트리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특히 3분기 EBITDA는 2977억원, 이자비용은 3197억원으로 이 배율이 0.9배에 불과해 과거 대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약화된 실정이다. 실제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지난 2021년 27.8배에서 2022년 1.2배로 급락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1.8배, 3분기에는 0.9배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롯데

케미칼은 EOD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설과 실적 부진이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석화 업황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업계는 롯데케미칼이 단기간 내 유의미한 영업현금 창출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올해 3분기 6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손실이 7055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시장 우려를 달래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 50%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지라시(정보지) 생성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직원 감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달 기준 4조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지속 검토를 통해 실

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롯데케미칼의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급한 불은 끄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의 해명은 일반 가계에 비유하면 ‘이미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지만, 아직 3금융권 대출이나 개인과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모습과 비슷하다”며 “문제는 집값 하락과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금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연다. 설명회에는 유동성 위기의 발원지인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처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양그룹 정기 임원인사·조직개편

김건호 사장, 스페셜티 등 화학사업 진두지휘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김 사장, 화학2그룹장 겸임
오너 4세 경영 본격화 전망

삼양그룹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사장을 화학사업 그룹장으로 선임했다. 김건호 사장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스페셜티’(고기능성) 사업의 지휘봉을 잡는다. 오너 4세에 신성장동력을 맡겨 승계 구도의 밑바탕을 그렸다는 분석이다.

삼양그룹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화학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글로벌(1그룹)과 스페셜티(2그룹)로 재편하고, 관련 임원을 선임하는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화학그룹을 ‘화학1그룹’과 ‘화학2그룹’으로 분리해 경영효율을 도모한다. 화학1그룹은 삼양사를 중심으로 ▲삼양이노캡 ▲삼양화성 ▲삼양화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사장

테크놀로지 ▲삼삼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화학소재사업군이 속한다. 화학2그룹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 삼양엔씨켄과 퍼스널케어 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아이(KCI), 지난해 인수합병한 글로벌 케미컬 기업 버든트(Verdant) 등 스페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로 구성된다.

화학1그룹은 기존의 화학그룹장인 강호성 대표가 맡으며, 화학2그룹은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이 그룹장을 겸직하며 관련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계획이다.

바이오팜그룹은 전(前)에스티팜 대표였던 김경진 사장을 영입해 그룹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김경진 그룹장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에스티팜에서 합성1연구부장·연구소장·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연구개발자로서는 물론 전문경영인으로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그룹장은 이번에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장으로 선임돼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성 강화와 mRNA 전달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삼양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외부 영입을 제외한 신규 임원 6명 중 3명을 40대로 구성하고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했다.

삼양그룹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성과 중심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이 차별화된 인력 발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는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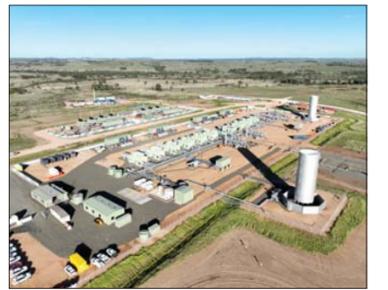
포스코인터, 호주 가스처리시설 시운전

1호기 완공... 천연가스 사업 확장 결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세넥스 에너지를 통한 증산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며, 호주 천연가스 사업 확장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있는 세넥스에너지 아틀라스 가스전에서 가스처리시설 1호기의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2년 한곡과 함께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호주 에너지수요가 밀집된 동부에 위치하여 지역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넥스에너지는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을 기존 20페타줄(PJ·국제에너지 열량측정 단위)에서 60페타줄로 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60페타줄의 천연가스는 LNG 약 1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세넥스에너지의 아틀라스 가스전 가스처리시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년 2분기까지 가스처리시설 1호기와 연계 가스수송관의 시운전을 완료하고, 차레대로 증산가스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가스처리시설 2호기, 3호기를 가동해 증산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증산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동호주 지역 내수가스 수요의 10%를 초과하는 규모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전자칠판에 EBS 콘텐츠 담는다

EBS-UBION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공략 박차

LG전자가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탑재한 ‘LG 전자칠판’으로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비온(UBION)과 ‘글로벌 교육 콘텐츠 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교육용 스

마트 디스플레이 LG 전자칠판에 EBS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제품에 콘텐츠를 더해 교육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전문기업 유비온은 LG 전자칠판에 내장하는 EBS 플랫폼 앱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전자칠판을 앞세워 에듀테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1만

여 대를 공급하기도 했다.

LG 전자칠판은 55~98형의 라인업으로 다양한 교육 공간에 맞춤 설치가 가능하다. 교육자료가 화면 내 간단한 조작만으로 칠판,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간편하게 전환되고, 도형·도표 등 다양한 교육용 템플릿을 제공해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돕는다.

대화면 터치스크린은 최대 40곳의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 제품에 탑재된 앱을 활용하면 최대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수업 중 학생들의 결과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제주항공, 韓日 노선 시장점유율 1위

국내 소비자들이 제주항공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올해 1~10월 한일 노선에서 총 315만3963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 한일 노선 승객(2056만명)의 15.3% 수준이다.

이는 국적 항공사 중 1위인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간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 중에 가장 높다고 제주항공은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인천, 부산발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16개의

한일 노선에서 주 22회 운항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부산~삿포로 노선에 신규 취항했으며, 다음 달 8일부터는 무안~나가사키 노선에도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가까운 곳으로 짧게, 자주 여행을 떠나는 트렌드와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견고한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단거리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가장 저비용항공사(LCC)다운 항공사로서 본연의 사업 모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